



봉사로 가득 채운 20,000시간의 따뜻함

윤영동 봉사자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 대가 없이 타인의 어려움을 돕는 ‘봉사’의 사전적 의미다. 고양시에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에서 아낌없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약 20,000시간을 봉사한 윤영동 봉사자가 있다. 고양시를 자원봉사가 가득한 도시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당찬 포부의 윤영동 봉사자를 만났다.

글 서충식 사진 이현재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1942년생으로 올해 79살인 윤영동입니다. 은퇴 후 2002년도에 고양시로 이사를 왔고, 우연히 복지관에 들렀는데 봉사할 사람이 필요해 보여 2005년부터 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신바람봉사단을 꾸려 복지관 식당에서 조리와 배식을 돕고 있고요.

Q. 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신바람봉사단은 어떤 모임인가요?

A. 봉사를 시작한 2005년도에 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해 한 사람, 두 사람씩 회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에 봉사단이 제대로 꾸러졌고, 지금은 1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 회원들이 배식팀과 준비팀으로 나뉘어 복지관에서 1,200인분의 식사를 매일 같이 준비합니다. 준비팀은 아침 8시부터 나와서 그날의 식자재들을 다듬고, 배식팀은 재료 손질을 돕거나 배식할 채비를 하고요. 그런데 항상 손이 모자라서 걱정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상



1 주교동 안전지킴이 활동 2 주교동 일촌협의체 활동

Q. 혹시 복지관 외에도 봉사하고 있는 곳이 있으신가요?

A. 주교동 일촌협의체 소속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교동에 사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청소를 해주거나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임기가 끝났지만 원당레일 일대를 야간순찰하고, 취객 및 불량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돌보는 시민안전지킴이의 대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외에도 원당적십자에서도 봉사를 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습니다.

Q. 윤영동 봉사자에게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고양시를 자원봉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도시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봉사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노인종합복지관 봉사

Q. 어려운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A. 봉사라는 것이 대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일손이 부족합니다. 복지관 식당에서는 하루에 최소 30명의 봉사 인원은 있어야 제대로 일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만약 인원이 부족하게 빠지면 복지관 2층, 3층을 다니며 봉사할 사람을 급하게 구하곤 하죠.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끌고 간다고 다들 저를 저승사자라고 부릅니다. (웃음)

Q. 봉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봉사를 하며 보람 있게 노후를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을 봉사해 달마다 120시간이 넘는 시간을 봉사하고 있어요. 지난해 이쯤에 16,000시간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20,000시간을 다 채워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보건복지부장관상, 경기도지사상, 고양시장상 등을 받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비록 저도 나이가 있기에 봉사가 고되지만 복지관에 온 노인들이 밥을 먹고 나가면서 ‘고맙다’, ‘덕분에 힘이 난다’라는 이야기에 큰 기쁨을 얻어갑니다.